

‘특혜 논란’ 경도 연륙교 건설 심의 보류

정부 “미래에셋 투자계획 세심한 검토 필요”... 19일 재심의 결과 주목

‘특혜 논란’이 있는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심의가 보류됐다.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연륙교 건설의 경제성이나 미래에셋의 투자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29일 여수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안을 포함한 경도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승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연륙교 건설의 경제성이나 관광객 유입 효과, 미래에셋 투자계획 등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세

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오는 19일 이 안건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위원들이 미래에셋 투자계획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심의 날짜가 오는 19일로 정해진 만큼 다소 시간은 늦어지겠지만, 승인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개발공사 등은 여수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경도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이 연륙교는 연장 1.52km, 폭 13.8m, 아치교·사장교(860m)로 총 사업비 1154억원이 소요된다. 1989년 고시된 여수시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광 효과-재난 대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여수시 입장이 반영됐다. 장기적으로는 신월동-경도-돌산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연륙교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국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전남도는 당초 6월까지 산자부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추진 과정이 순조로우면 연륙교 건설비는 국가 40%, 전남도와 여수시 40%, 미래에셋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연륙교 건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투자자인 미래에셋 측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심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미개발부지)까지 6성급호텔, 4성급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 마린, 대관람차, 인공해변 및 인공서핑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파도의 음악 ‘오션 오르간’ 여수신북항에 설치

파도의 힘으로 소리를 내는 오션 오르간(조감도)이 이르면 내년 3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연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착공한 여수신북항 방파제에 오션 오르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오션 오르간은 파도가 밀려들 때 발생하는 공기의 힘을 동력으로 사용하며, 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로 음악을 만든다. 5음계로 이뤄져 자연의 음색을 구현할 수 있다. 해풍에 견딜 수 있도록 아연 합금 처리한 1~2.5m 크기의 파이프 30

개로 이뤄진다.

해외에선 크로아티아 남부의 휴양지인 자다르 해변의 바다 오르간이 유명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다.

2015년 5월 착공한 여수신북항은 총 공사비 2678억원을 들여 외곽시설(방파제) 1360m와 계류시설 1202m를 건설한다. 2021년 3월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여수신북항이 완공되면 관광선과 여수해경 소속 선박 등 200여척이 접안할 수 있게 된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이 지난 29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장인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와 이사진 및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개최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연구소(소장 임성기)가 지난 29일 오후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광주 재생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광주시와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관련 기사 8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성기 소장을 비롯한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현대도시계획연구소 소장, 강권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 등이 현재

광주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상준 동신대 교수, 이명규 광주대 교수, 유창균 목포대 교수 등 광주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순남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안평환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등이 광주의 미래 재생의 바람직한 방안을 각 기관의 입장에서 피력했다.

연구소는 도시계획, 건축, 마을공동체, 청년, 문화, 예술, 마케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협업 시스템을 구축, 과거 편향적인 도시 재생 방안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광주 도시 내 남

아 있는 마을, 근대시설, 자원 등의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인근 주거지, 구역 등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임성기 소장은 “연구소의 창립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원주민을 무시한 획일적 인 아파트 계획이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시작점”이라며 “다양한 인재들이 광주를 되살리고, 더 나아가 광주를 변형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에 옮기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북 국제상선공통망 10년 만에 정상 가동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방부는 1일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실시한 남북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했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했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순천 선암사



해남 대홍사

해남 대홍사·순천 선암사 등 7곳 세계유산 등재

해남 대홍사, 순천의 선암사 등 한국의 산사 7곳이 모두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최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한국의 산사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은 대홍사와 선암사 외에도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등 모두 7개 사찰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3건을 보유하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한꺼번에 등재된 이래 1997년 창덕궁과 수원 화

성, 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돼 모두 13건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등재가 된 대홍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로, 신라시대 창건됐으며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에 소재한다. 특히, 대홍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를 했던 남다른 인연을 지닌 절로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신라시대 도선이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순천 선암사는 서쪽에 있는 평평한 큰 돌에서 옛 선인(仙人)이 비옥을 뒀다는 설화가 전해와 선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절 앞에 아치형의 승선교(보물 제400호)가 유명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1억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신안군 압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옆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거리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농성초전너머 리모델링원룸 땅 144㎡ 2중주택 118㎡ 1억9500
- 화산 동면 땅 706㎡ 2중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원 2억6천

투자·매도·교환

- 장흥 부산면 산 566083㎡ 은행 2억3천 매도 6억
- 무안 망운면 목서리 도로점 전 2238㎡와 현경면 해운리 대지 555㎡ 귀농생활적합 은행 9천 인수하고 25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가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충남 보령시 원산도 664㎡ 농림 9천 취득 1억4천 매도 1300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공시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출몰 2억
- 수목정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28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중주거지 3192㎡ 다양함용도 2억6천
- 태양광적합 영광 군남 반안리 114843㎡ 매도 6억5천

상가건물

- 북구 우산동 대로점 땅 377㎡ 건물5층 972㎡ 은행8억 매도19억5천
- 동구 충장로57가점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북구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실 830㎡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가센타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중추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중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공개강좌(무료)

- 일시 : 2018년 7월 8일(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공개강좌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